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주 은 지도교수
석사학위 청구논문

미술교육적 관점에서 본
안토니오 가우디 작품의 조형성
- 창의성 교육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

201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김 양 희

미술교육적 관점에서 본
안토니오 가우디 작품의 조형성
- 창의성 교육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

이 주 은 지도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김 양 희

인 준 서

김양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논 문 개 요

현대 사회는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사회의 산업화와 근대 이후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로 인하여 새로운 것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 및 사회 문화의 생성으로 상식을 파괴하는 상상력, 그리고 현실에의 고착을 깨기 위한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창의력을 꼽을 수 있으며 창의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미술교육을 들 수 있다.

오늘날 현대 미술은, 객관적 표현과 기록에 치중한 17세기 이전 및 근대미술과 달리 상상력이 다양하게 접목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술교육은 19세기 후반에 학교교육으로 도입되면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산업화를 주도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왔다. 미술교육을 통해서 상상력과 독창성을 발달시킬 수 있었고 창의성 계발 및 지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세기 치첵(Franz Cizek)에 의해 시작된 미술교육은 듀이(John Dewey), 로웬펠트(V. Lowenfeld), 허버트 리드(Herbert Read)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오늘날 우리나라 미술교육에서도 창의성은 가장 큰 기본원리로 다루어지고 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생산기계의 출현은 인간의 생활을 좀 더 편하게 변화시켰다. 이로 인하여 당시까지 세계를 지배하던 관념과 기준은 과거의 그것과 크게 달라졌으며 급격한 관념의 변화는 새로운 예술과 건축을 요구했다. 19세기 후반의 창작은 당시까지의 예술을 지배하던 덕목인 '정직함'과 '세밀함'을 능가하고 넘어서야 했다. 나아가 예술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실적인 표현'에서 벗어나 그 근본을 표현하려는 움직임으로 변해가고 있었으며, 그 시대의 중심에는 안토니오 가우디(Antonio Gaudi 1852~1926)가 있었다. 안토니오 가우디의 건축 작품은 미술교육이 시작된 19세기에는 앞선 '시대정신'을 표현하여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현재는 스페인을 대표할 만큼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아르누보 양식 및 모자이크 양식 속에서 독창적으로 진보한 가우디의 창의성은 현대 시각문화의 흐름 속에서 미술, 디자인, 건축 및 의

류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미술교육은, 가우디의 조형성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상, 느낌, 감정, 성격, 정서, 경험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개개인의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현대 최고의 예술가로 인정받고 있는 에스파냐 출생의 안토니오 가우디 (Antonio Gaudi)의 곡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건축 작품의 조형성을 분석하고, 그 미적 가치와 예술성을 미술교육에 응용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창의력 발전을 위한 교육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첫째, 현대 미술의 조형성과 가우디 작품의 조형성을 문헌연구 중심으로 분석한다.

둘째, 창의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가우디의 조형성을 응용한 창의적인 표현방법을 총체적으로 연구한다.

셋째, 가우디의 조형성을 미술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제시한다.

넷째, 앞에서 살펴 본 미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술수업의 교육적 가치를 재확인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현대 미술의 조형성과 가우디의 조형성을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동시에 이를 다양하고 흥미로운 표현활동이 가능하도록 창의성 미술교육에 적용해 봄으로써, 창의력 발전을 위한 그 교육적 가치를 연구하는데 있다.

목 차

논 문 개 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II. 가우디 작품의 조형성 분석	4
1. 현대 미술의 조형적 특성과 가우디	4
2. 가우디 작품의 조형적 요소	11
1) 형태적 특성	13
2) 장식적 요소	25
3) 색채 표현	35
4) 재료와 질감의 특성	39
III. 가우디 작품을 응용한 창의성 미술교육	41
1. 창의적 표현과 미술교육	41
1) 창의성의 개념	41
2) 창의성 미술교육의 필요성	41
2. 가우디 조형언어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	42
1) 미적 체험 활동	44
2) 표현 활동	47
3) 감상 활동	51
3. 창의성 미술수업의 교육적 가치	54

1) 예술적 측면	54
2) 사회적 측면	54
IV. 결론	56
참고문헌	64
ABSTRACT	67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창의력을 꼽을 수 있으며, 오늘날 현대 미술은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술의 특성상 창의성이 중요시 되고 있다. 정보화 시대는 정보가 획기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이고,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가장 큰 가치를 지니는 '창의적인 두뇌의 사회'이다. 정보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생산기지는 바로 두뇌이고 이에 맞는 창의적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이다.¹⁾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기계의 출현은 인간의 생활을 좀 더 편하게 변화시켰다. 이제까지 세계를 지배하던 관념과 기준은 이제 새로운 예술과 건축을 요구한다. 19세기 후반의 창작은 당시까지의 예술을 지배하던 덕목인 '정직함'과 '세밀함'을 능가하고 넘어서야 했으며, 예술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실적인 표현'에서 벗어나 그 근본을 표현하려는 움직임으로 변해가고 있던 것이다. 그 시대의 중심에는 안토니오 가우디가 있었다. 보다 아름답고 개성 넘치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동시대적 감성의 요구에 맞춰, 일찍이 스페인의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는 "主" 를 위한 건축에 "美" 를 더하여 조각품과 같은 건축물로 당시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²⁾

미술교육이 시작된 19세기에는 창의성을 소수만이 갖는 선천적인 능력으로 간주하던 시대 속에서 안토니오 가우디의 건축 작품은 너무 앞서간 '시대정신'을 표현하여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게슈탈트(Gestalt)학파가 창의적 사고를 연구하면서 '재구성'이란 개념을 도입하면서 가우디의 작품은 오늘날의 스페인을 대표하는 최고의 예술품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현대 미술의 흐름 속에서 가우디의 창의성에 대한 연구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창의적 미술교육'은 가우디의 조형성을 통해 자신이 가지

1) 문정화, 하종덕 공저, 『또 하나의 교육 창의성』, 학지사, 1999.

2) 신호정, 「안토니오 가우디 건축 작품의 형태미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2008. p.1

고 있는 생각과 상상, 느낌, 감정, 성격, 정서, 경험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개성을 발휘함으로써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술을 예술영역의 한 부분이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예술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러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인 작품을 향수하는 문화 활동의 하나이다.³⁾ 또한 미술은 인간의 삶에서 분리될 수 없는 생활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21세기에 들어 시각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그 중심에 미술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창의성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유용한 요소이다. 기존의 형식 속에서 재구성을 통한 다양한 양식을 발견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안토니오 가우디의 작품 역시 창의성을 인정받고 있다. 안토니오 가우디의 조형성을 통해서 급변하는 사회적 감성에 발맞춰 창의성을 계발하는데 초점을 두면서 더불어 조형능력도 동시에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가우디의 조형성과 동시대 미술의 조형성을 비교 분석하고, 다양하고 흥미로운 표현활동이 가능하도록 창의적 미술교육에 적용될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교육적 가치를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가우디의 조형성과 동시대 미술의 조형성을 비교 분석하고 그 미적 가치와 예술성을 미술교육에 응용하여 학생들의 창의력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흥미로운 표현활동이 가능하도록 창의성 미술교육에 적용해 봄으로서 그 교육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가우디의 조형성을 토대로 작가의 기법적 특징이 나타나 있는 모자이크와 아치 공법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체험과 다양한 기법 연구를 기준으로 창의적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발상과

3) 임정기, 이성도, 김황기,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예경, 2006, p.12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학습지도안을 포함 했다.

본 연구는 가우디의 조형성 분석을 통해 창의적 미술교육에 응용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가우디 작품의 조형성을 동시대 미술의 특징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형태적 요소, 장식적 요소, 색채 표현, 재료와 질감의 특성 등 가우디 작품의 조형적 요소를 4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3장에서 가우디 작품을 응용한 창의성 미술교육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가우디 조형언어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토대로 미적 체험 활동, 표현 활동, 감상 활동으로 나누어 학습지도안을 제작하였다.

마지막 4장에서는 결론으로 창의적인 미술교육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이론적 연구 방법으로서 학자의 저서, 연구 보고서, 논문, 학술지 등의 문헌에 근거한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이론적 연구 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 수업에서 사용된 바는 없으며, 가우디 작품의 조형성을 바탕으로 효과적 수업을 위한 교육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음을 밝힌다.

II. 가우디 작품의 조형성 분석

1. 현대 미술의 조형적 특성과 가우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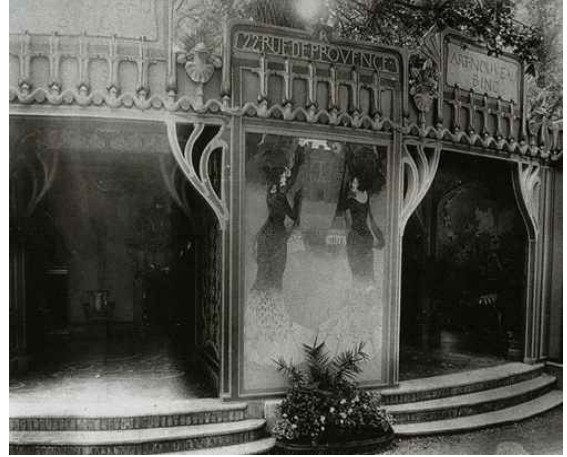
가우디가 활동했던 19세기는 프랑스 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해, 대량생산을 통한 기계문명이 발전하였다. 더불어, 20세기에는 과거양식의 모방이 아니라 개인적 발상에 의한 새로운 건축형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상으로 변화하였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영국에서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는 획일적인 산업화가 공예분야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간과할 수 없었던 결과, 중세 수공업적인 디테일을 지향하는 공예개혁을 시도했다. 가구와 공예품은 ‘기능에 적합한 재료의 선정과 구성으로 견고하고 실용적으로 제작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일상적 삶 속에서 미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공예운동의 핵심이었다. 모리스와 생각을 같이한 사람들은 삶 속의 미술, 미술 속의 삶을 이루려는 유럽 대륙의 아르누보 미술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운동은 독일에서는 ‘유켄트취틸(Jugendstil)’로, 오스트리아에서는 ‘췌제시온(Secession)’으로, 영국에서는 ‘아르누보(Art Nouveau)’, 또는 ‘모리스 스타일(Morris style)’로, 프랑스에서는 ‘기마르 양식(Guimard style), 이탈리아에서는 ‘리버티(Liberty)’, 스페인에서는 ‘모데르니스모(Modernismo)’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명명되었다.⁴⁾ 자연에서 추출한 선을 주로 사용하는 아르누보 운동과 독일공작연맹의 등장으로 새로운 재료인 철과 콘크리트가 사용되고 이를 다루는 새로운 기술 등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림 1><그림 2>. 이로 인해 기존의 외곽선이나 기하학적 특성은 사라지고 자연적이고 유기적인 곡선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그림 3>.

파리에서는 엑토르 귀마르(Hector Guimard)에 의해 아르누보가 나타났다. 이전의 건축과 달리 공장이나 창고와 같은 산업시설과 생활 속의 건축물로 관심이 옮겨진 예가 바로 ‘파리 전철역의 입구’이며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독창적이고 효과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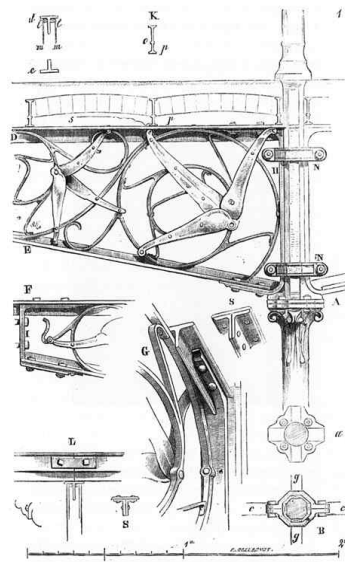
4) 비난트 클라센, 『서양 건축사』 서울:대우,1990, p.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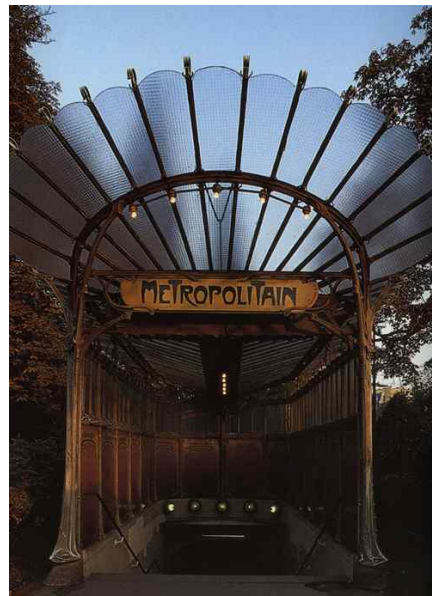
<그림 1> 파리 만국박람회 청색관, 1900



<그림 2> 아르누보 빙 전시관, 1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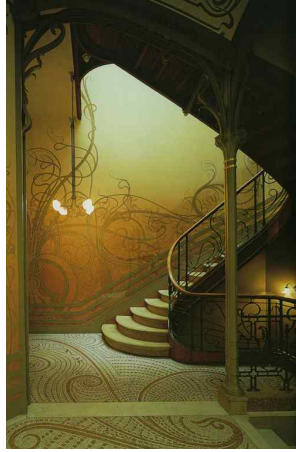


<그림 3> 연결 받침대를 위한 시안, 1872



<그림 4> 엑토르 기마르 지하철 역 입구, 1900~1

그렇다면 아르누보는 어떠한 예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아르누보의 예술적 특징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격은 '곡선성'을 들 수 있다. 이는 직선보다는 소용돌이치고 서로 교차하는 곡선이 주로 사용되었다는 데에 특징이 있으며 연속적인 곡선이 기계적이고 추상적인 선이 아니라 식물처럼 유기적으로 살아있는 느낌을 주도록 비대칭적으로 덩굴이 무성하게 뻗어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그림 5><그림 6><그림 7>.



<그림 5> 빅토르 오르타 타셀하우스, 1893~95



<그림 6> 빅토르 오르타 타셀하우스 현관, 1893~95



<그림 7> 왼쪽 빅토르 오르타 타셀하우스 스테인드글라스 1893~95
오른쪽 아우구스트엔텔 엘비라 사진 작업실 1897-98,

아르누보의 두 번째 특징은 '평면성'이다. 르네상스 이래 유럽에서는 평면에 원근법을 사용하여 깊이감 있는 듯한 눈속임의 그림이 성황을 이루었다. 1855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일본은 자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대규모 공예품과 미술품 전시회를 열었는데, 당시 일본 도자기가 유럽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이 시기에 무역업이 활성화 되면서 일본의 도자기가 수입되었고 도자기를 포장하는 데 쓰였던 종이에 프린트 된 일본에도 시대의 판화 우키요에와 같이 원근법이 없는 평면적인 장식적 형태가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이로 인해 대칭에 의한 균형보다는 비대칭으로 균형을 추구한다 <그림 8><그림 9>.



<그림 8> 우키요에



<그림 9> 카츠시카 호쿠사이 1760-1849

세 번째 특징으로는 '장식성'을 들 수 있다. 파동적, 비대칭적인 곡선이며 꽃줄기와 봉오리, 포도 덩굴손, 곤충의 날개 등 미묘하고 구불구불한 자연물의 모양을 하고 있었으며, 아르누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자포니즘(japonisme)' 즉 일본 미술에 대한 취미였다 <그림 10><그림 11>.



<그림 10> 티퍼니 스튜디오 '잠자리' 탁자용 전등 1900



<그림 11> 루이 살롱 '수련 요정' 꽃병 1898

아르누보 건축양식은 특히 1890년대 초에서 20세기 초까지 벨기에와 프랑스 그리고 가우디에 의해 스페인의 카탈루냐에서 두드러지게 발달하고 성황을 이루었으며, 가우디는 카탈루냐의 아르누보 운동인 '모데르니즘(Modernismo)'의 중심에 있었다.⁵⁾

아르누보 양식의 절정에서 그의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건축물 대부분이 바르셀로나에 몰려있을 수 밖에 없었던 여러 이유 중에 예나 지금이나 스페인 최대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카탈루냐의 자존심과 독립심이 아르누보라는 사치스런 건축을 가우디로 하여금 가능케 할 수 있었다.⁶⁾

안토니오 가우디는 3대가 구리대장장이였던 가난한 장인집안에서 성장했다. 그의 건축 스타일은 설계나 스케치 없이도 돌을 자유자재로 주무르는 듯 하였고 이러한 재능은 집안의 내력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불을 다루는 방법, 구리를 제련하는 방법, 무쇠를 녹이는 방법 등을 배우면서 자신의 상상력과 결합하여 새로운 예술적 조형체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가우디는 학교를 졸업하고 카탈루냐 지방을 여행하면서 리우돔 마을의 조그마한 시골집에서 여름이면 관찰할 수 있었던 자연 형태의 아름다움과 타라코나 시골 풍경의 광명스러움에 감명을 받게 된다 <그림 12>. 이로서 자연이라는 것이 광물, 동물이나 식물 세계에 아름다운 형태를 탄생시킨다는 사실을 터득하고 자연의 의도는 원래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유용하고 기능적인 것들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게다가 지중해의 강렬한 빛으로 인해 모자이크로 장식된 성당의 벽과 천장에 있던 색색의 유리 조각들은 가우디의 눈을 사로잡았다. 유적 속에 남겨진 빛바랜 돌 한 조각, 색유리 파편 하나를 통해서 진정한 미학적 가치를 느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3>.⁷⁾

그는 고향의 자연 속에서 다양한 상상의 세계를 펼칠 수 있었고, 자연 속에서 함께 숨쉬고 있는 건축 유적들은 가우디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시켜 주면서 사물을 꿰뚫어 보는 힘을 주었다. 가우디는 "독창성이라는 것은 자연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의 근원인 신이 창조한 자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환경을

5) Modernismo, 옛 것에 대한 경멸과 새로움에 대해 찬양하는 태도. 스페인 카탈루냐의 아르누보.

6) 전진삼, 『건축의 발견』, 미건사, 1994, p.254.

7) 손세관. 『안토니오 가우디 아름다움을 건축한 수도자』. 서울: 살림출판사, 2004. p.16.

매우 중요시 여긴 건축가였다.⁸⁾



<그림 12> 타라고나 성당



<그림 13> 타라고나 성당

가우디에게 있어서 자연은 하나의 근본적인 구조물이었으며 단순하게 펼쳐져 있는 식물의 덩굴손이나 잎사귀, 꽃과 같은 물체가 아니었다. 그의 자연에 대한 관심과 놀랄만한 관찰력은 하늘과 구름, 물과 바람, 나무와 식물, 동물과 곤충, 산과 바위 등을 통한 건축 언어에의 접목을 가능케 했다.

그의 건물 구성을 보면 동물의 뼈, 야자수, 곤충, 사람의 해골 등에 바탕을 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나무의 줄기와 해골만큼 아름답고 완벽한 구조는 없고 아무리 아름다운 돔이라도 해골의 내부에 비할 수 없으며, 산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안정성에 어떤 건물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자연은 신의 작품이며, 그곳으로부터 건축 양식을 얻게 된다면 조물주의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가우디는 신이 인간을 통해서 창조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림 14>.⁹⁾

가우디는 설계도보다 모형을 중요시 했다. 그 모형을 만들기 전 그는 실을 천장에 매달고 탑 부분과 전체적인 모습을 모래주머니 혹은 납을 중간 중간에 매달아 그 휨의 강도를 측정해 나갔다 <그림 15>. 그리고 최상의 곡선과 아름다움이 나오면 이를 스케치했다. 그런 다음 건물의 형태와 구조를 결정하고, 이렇게 한 건축구조형태에 대해 가우디는 자기 자신이 구조 계산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현대의 첨단 장비를 동원한 구조 계산에서 오류가 발견된 것은 없으며 이는 그의 완벽한 균형감각

8) 김수진, 「안토니오 가우디의 조형성을 활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2003. p.18.

9) 김수진, 「안토니오 가우디의 조형성을 활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2003. p.19.

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의 작품은 스스로 말했듯이 '자연에서 태어나고 자연이 베풀어주는 매우 균형잡힌 자연적 구조인 것이다 <그림 16>.¹⁰⁾



<그림 14> 가우디 작업실



<그림 15> 가우디의 중량작업



<그림 16> 가우디의 중량작업과 담채화

10) Antonio Gaudi, 『Gaudi』, 경기도 조선일보사, 2000, p.12.

2. 가우디 작품의 조형적 요소

스페인 아르누보 건축가, 가우디는 과거 양식 특히, 고딕 양식과 이슬람 양식을 소화하면서 건축을 장식화, 자연화, 기하학화 하려고 함으로써 가우디의 독창적인 조형 세계가 구축되었다. 그가 다른 건축가들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형태와 공간을 3차원적으로 연출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가우디 건축물의 시기는 모두 3기로 구분된다. 우선 건축형태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구엘 지하성당의 구조해석시기를 전후로 하여 처음 작품인 비센스 주택에서부터 로스 보티네스 주택까지를 1기로, 구조해석이 진행되던 갈베 주택에서 벨레스구아드 저택에 이르는 시기를 2기로, 구조해석이 끝난 바틀로 아파트부터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부속학교에 이르는 시기를 3기로 정하였다.

파밀리아 성당 설계를 맡아 구조에 대한 실험을 하게 되는 1898년경을 구조해석시기로 보며 이를 1기~3기로 구분한 것이며, 이러한 분류 이외에도 형태를 중심으로 장식적 조각시기, 조각적 조형시기, 절충적 조형시기, 구조적 조형시기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¹¹⁾

가우디는 장식적 조형시기에 형상의 가장 명료한 표현은 골격이며 그 이외의 것은 골격을 덮기 위한 장식이고, 형태는 점이나 선이 아닌 연속적인 것이 가장 완벽하다고 보았다.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내부 구조를 보면 골격이 노출되어 있으며, 그 형상은 자연을 모티브로 하였다.

장식에 대한 그의 관심은 식물 문양과 각명에 나타나는 기하학적인 형태의 특성을 지닌 식물 문양을 이용해 기둥의 주두 장식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러한 각명은 주택, 성당, 학교 등 대부분의 건축물에 나타나고 간결화된 상징어로 건물의 특성 보다 성경의 구절이나 내용을 묘사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1900년 이후 조각적 조형시기에는 장식적인 면이 골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까사 바틀로(Casa Batllo 1904~1906)와 까사 밀라(Casa Mila 1906~1910)에 그 특징이 집중되어 있다.

11) 김수진, 「안토니오 가우디의 조형성을 활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p.23-25 를 참조하여 작성함.

그는 건축의 요소와 형태를 명확하게 해주는 색채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는 '건축에는 4가지 요소가 있으며, 그것은 배치, 크기, 형태 그리고 색채이다'라고 하였다.¹²⁾ 가우디의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으며 타일조각 모자이크나 깨진 병 유리조각 모자이크는 가우디의 장식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 절에서는 가우디의 건축 작품을 형태적 특성, 장식적 요소, 색채 표현, 재료와 질감의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표 1> 안토니오 가우디 연보¹³⁾

작품	년도	82	85	90	95	1900	05	10	15	20	25	30
장식적 조형	엘 카프리초	■										
	까사 비센스	■	■	■								
	구엘 별장		■									
	구엘 궁전			■								
	테레사 수녀원 학교				■							
	아스토프가 주교관					■						
	까사 보띠네스					■						
조각적 조형	까사 깔벳					■						
	구엘 성지성당/남공당					■	■	■	■	■		
	까사 벨레스구아르트					■						
	구엘 공원					■	■	■	■			
	밀라레스 문					■						
	마요르카 대성당 조명등						■	■	■			
	까사 바틀로						■					
까사 밀라							■	■				
3기	사드라다 파밀리아 학교								■			
	사그라다 파밀리아	■	■	■	■	■	■	■	■	■	■	■

12) 안토니오 가우디, 이종석 역, 『안토니오 가우디 공간의 환상』 다빈치, 2001. p.81.

13) 김수진, 「안토니오 가우디의 조형성을 활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p.24-25 를 참조하여 작성함.

1) 형태적 특성

가우디의 작품은 대체로 1900년대를 경계로 하여 초기에 해당하는 장식적 조형과 가우디의 예술적 작품들이 밀집되어 있는 조각적 조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초기 작품들은 다양한 기존의 양식을 수용하여 큰 변화 없이 중후한 느낌의 외관 모습에 장식적인 성향만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초기의 작품들 중에서도 기하학적 조형과 장식적 조형으로 나눌 수 있다. 형태가 갖고 있는 질서에 의해 규칙적이며 객관화 시킨 기하학적 형태는 수학적 법칙에 따라 뚜렷한 질서를 가지고 있으며, 단순 명료한 감각에 의한 것으로 자연적 형태에서 파생되었으나,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자연과는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되어 진다.¹⁴⁾ 장식적 조형은 대부분 자연을 표현한 것인데, 그대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변형시키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품은 엘 카프리초(El Capricho 1883~1885), 까사 비센스 (Casa Visence 1883~1888), 구엘 궁전(Palau Guell 1886~1888), 테레사 수녀원 학교(Theresan College 1888~1890) 등이 있다. 또한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조각의 형태를 띠는 까사 바틀로(Casa Batllo 1904~1906)와 까사 밀라(Casa Mila 1906~1910)가 있으며, 구엘 공원(Parague Guell 1901~1914)은 자연의 형태를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최고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으며, 가우디의 생애를 모두 바친 사그라다 파밀리아(La Sagrada Familia 1882~1926)가 후기에 대표적인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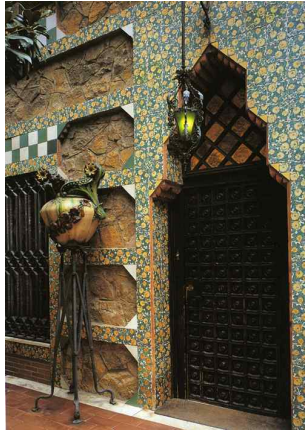
까사 비센스 (Casa Visence 1883~1888)는 어떠한 양식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한 가우디만의 조형적 감각이 드러난 작품이다.¹⁵⁾ <그림 17> 외관은 전체적으로 기하학적인 패턴과 풍부한 동식물의 장식들이 덧붙여 있었으며, 전통적인 무데하르 장식과 유사성을 느낄 수 있으나, 이슬람 건축 양식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절충주의 방식에 따라 벽돌, 돌, 잡석, 타일과 같은 강한 질감의 자연적 재료를 사용하여 매우 독창적으로 재조립하고 결합시켰다 <그림 18><그림 19><그림 20>.

까사 비센스는 가우디가 건축 부지를 답사했을 때, 그곳엔 노란 아프리카 금잔화가 양탄자처럼 깔려있었고, <그림 21>그 가운데 잎이 무성한 거대한 야자수와 함께 그 안에 벌레를 잡으려는 새들로 가득했다고 한다.¹⁶⁾ 이를 모티브로 제작 당시에 주변 환

14) 정은주, 「가우디 건축모티브 텍스트일 디자인 연구」 p.6

15) 손세관, 『안토니오 가우디 아름다움을 건축한 수도자』, 2004, p.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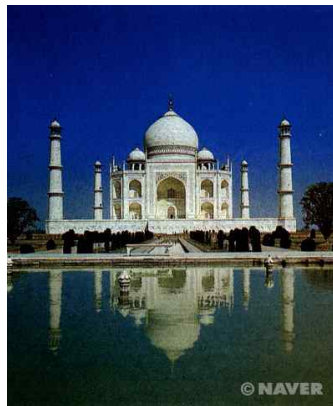
경과 건축물이 완벽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참고하였다 <그림 22>.



<그림 17> 까사 빈센스



<그림 18> 까사 빈센스 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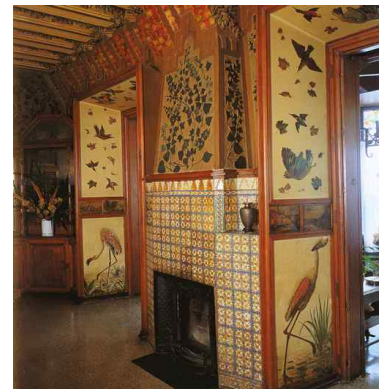
<그림 19> 타지마할



<그림 20> 용산 이슬람사원



<그림 21> 까사 빈센스 금잔화와 금잔화 형상의 채색타일



<그림 22> 까사 빈센스 내부

16) 손세관, 『안토니오 가우디 아름다움을 건축한 수도자』, 2004, p.58

구엘 궁전(Palau Guell 1886~1888)은 에우세비오 구엘 바시갈루피(Eusebio Guell Bacigalupi)의 주택인데 성공을 기념하여 신축하기로 한 것이다. 구조는 지하에 마구간이 자리잡고 있으며, 1층에는 마구간으로 향하는 현관과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현관이 나란히 있고 주차장이 있다. 2층에는 거실과 응접실이 있으며, 미사를 드릴 수 있는 제대가 마련되어 있다 <그림 23>. 3층에는 서재와 넓은 식당이 있다. 이 궁전의 공간 구성은 기능적이며 자유스러움을 갖고 있다. 실내의 모습은 궁전과 같은 모습을 띄고 있으며, 홀 위에는 둥근 천장을 가지고 있고, 환기구와 채광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4>. 이 집의 중앙에는 가장 높은 굴뚝모양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곳으로 빛이 들어오면 홀을 비출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의 주택이지만 매우 독창적이면서도 주변의 건물과도 조화롭고 기능적인 작품을 제작했다 <그림 25>.



<그림 23> 구엘 궁전 내부



<그림 24> 구엘 궁전
돔형식의 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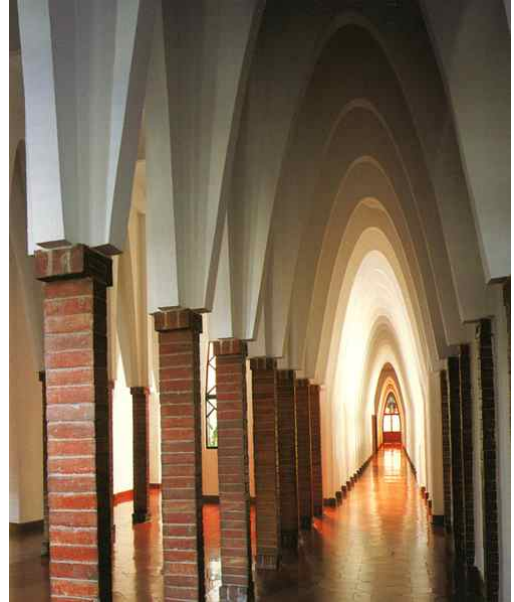


<그림 25> 구엘 궁전
환기구와 채광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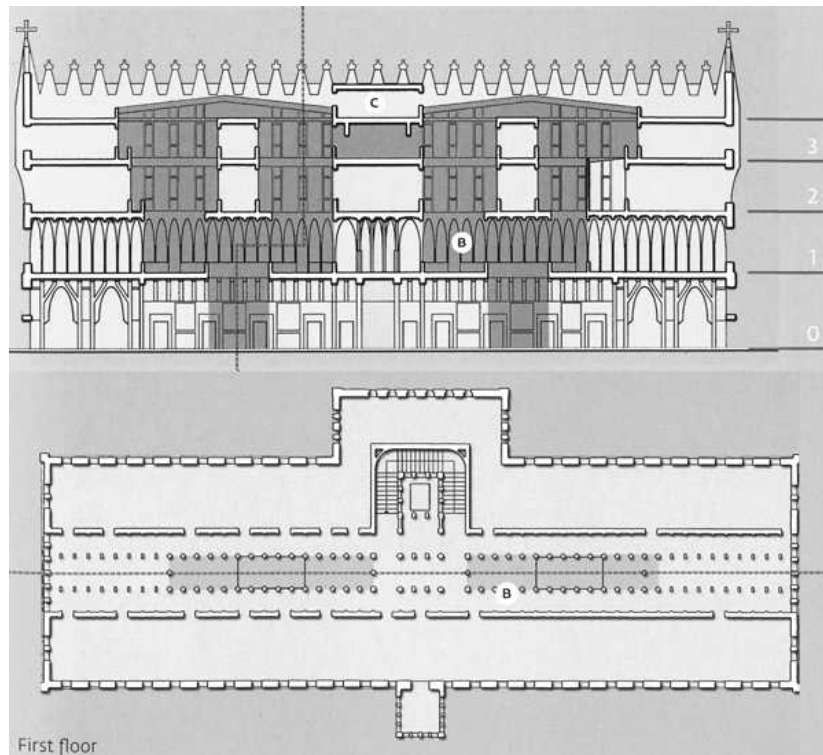
테레사 수녀원 학교(Theresan College 1888~1890)는 묵상과 성찰, 엄격함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요소들이 나타난다. 이런 특징은 똑같은 모양과 크기의 창문들이 규칙적으로 반복된다 <그림 26>. 수녀원 학교는 비용을 많이 들일 수 없는 여건이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기숙생과 통학생들이 돌아다니며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물이므로 학생들의 통행과 숙박, 채광의 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했다. 그래서 건물을 관통하는 복도를 중앙에 배치하고 채광이 많이 들어야 하는 교실은 1,2층으로 하였으며, 외관의 모습도 이에 맞춰서 채광창의 기능을 고려하여 디자인 하였다 <그림 27><그림 28>.17)



<그림 26> 테레사수녀원



<그림 27> 테레사수녀원 내부



<그림 28> 테레사수녀원 전개도

17) 필립 티에보, 『가우디 예언자적인 건축가』, 시공사, p.45

가우디의 작품들은 점점 장식적인 면에서 발전해 건물 전체가 하나의 조각품처럼 거대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그의 절정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까사 바틀로(Casa Batllo 1904~1906)와 까사 밀라(Casa Mila 1906~1910)가 '총체적인 자연'의 모습을 표현하려는 가우디의 사상이 잘 드러난다.

까사 바틀로는 바르셀로나 그라시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외관은 동물의 뼈와 같은 기둥들이 단순히 장식이 아닌 구조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집을 새로 신축한 것이 아니라 고쳐지은 것이라는 것이다. 단순한 정비만으로 것처럼 새로운 건축물을 탄생시켰다는 것은 대단하다. 외관에서 물결치는 듯한 선은 건물 내부까지 이어져 각 방에까지 스며들었다. 지붕에서 보이는 용의 등뼈는 1층부터 2층까지 이어지는 계단 난간에도 나타난다 <그림 29>.¹⁸⁾



<그림 29> 까사 바틀로 옥상에서 1, 2층을 연결하는 용의 척추를 형상화한 계단

이 건물에서는 직선을 찾아볼 수가 없다. 각 방에 있는 소품이나 가구까지도 인체공학을 염두 하여 철저하게 연구하여 탄생된 작품들이다. 사람이 걸터앉았을 때 몸의 곡선에 딱 맞게 디자인되었다 <그림 30><그림 31>. 또한 테라스에서 바람이 불면 건물

18) 필립 티에보, 『가우디 예언자적인 건축가』, 시공사, p.68

전체에 공기의 흐름에 따라 막힘없이 유연한 곡선으로 모든 벽과 천장을 제작했다 <그림 32><그림 33>. 거대한 유기체적인 건물이 꿈틀대는 느낌을 전달해 준다. 거실은 시내를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파노라마식으로 곡선을 이루고 있으며, 창문에 색유리 하나까지도 빛을 감지하여 보는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34><그림 35>. 실내의 모습은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를 상상하게 되고, 건물 외관에 다색의 타일로 만든 지붕은 도마뱀의 등줄기와 무지개 빛 비늘을 연상시키며 햇빛에 반짝이고 경쾌한 느낌을 전달해 준다 <그림 36>.



<그림 30> 까사 바틀로 곡선 처리된 창문



<그림 31> 인체 공학적으로 제작된 의자



<그림 32> 공기의 흐름을 유도한 구조



<그림 33> 까사 바틀로 내부 환풍구



<그림 34> 까사 바틀로 내부



<그림 35> 까사 바틀로 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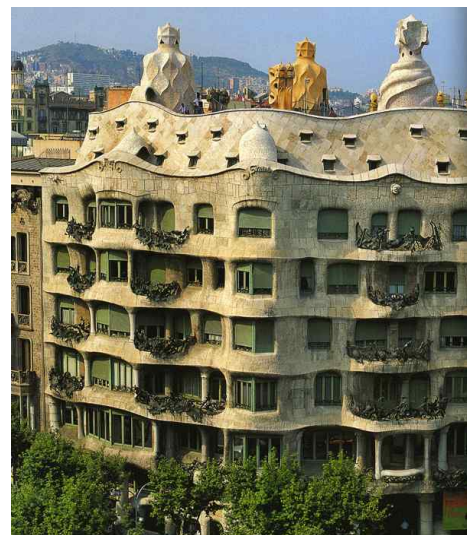


<그림 36> 까사 바틀로 옥상 지붕

일명 '라 페드레라'(La Pedrera) 채석장이라고 불리는 까사 밀라는 한 가지 재료인 크림색의 돌로 만들어져 있기에 다른 색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림 37>. 가라프 (Garaph)와 빌마함까 지방의 돌들을 사용하였고, 구조적으로나 시각적으로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 가우디는 건물의 특징들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건물과 건물이 만나는 모퉁이 자리에서 모퉁이를 없애고, 그곳을 중심으로 다시 양쪽으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펼쳐지도록 건물을 재탄생 시켰다 <그림 38>.



<그림 37> 까사 밀라 중앙



<그림 38> 까사 밀라

건물 전체에 퍼져 있는 곡선은 바다를 형상화한 듯 물결치고 있으며, 난간 부분은 해초덩어리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9>. '멈추지 않는 선'으로 묘사될 정도로 물결치는 외관은 옥상 지붕의 굴뚝으로까지 이어져 있다. 자연물에서 형상화시켜 만든 굴뚝은 성모마리아를 위한 기념비적인 요소이다 <그림 40>. 사실 까사 밀라는 애초에 성모마리아를 기념하기 위한 건축물로 구상되었었다. 하지만 때마침 1907년 7월에 반교권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켜 무려 50여 채나 되는 종교 건물들을 불태웠던 사건이 있었던 터라, 그것을 겁낸 건물주는 성모상과 작은 탑을 설치하길 거부했다.¹⁹⁾ 또한 이 당시에는 건물의 높이 제한이 있어서 높게 지은 건물은 벌금을 물기도 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폭동으로 인해 가우디의 작품과 자료들이 불에 타 사라지기도 했다.



<그림 39> 까사 밀라 난간 철재 장식



<그림 40> 까사 밀라 옥상 환기구 조형물

자연을 소중히 여겼던 가우디는 공사 중에 훼손되는 꽃 하나, 나무뿌리 하나 없이 그대로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작품이 바로 구엘 공원(Paragüe Güell 1901~1914)이다. 에우세비오 구엘은 1900년 바르셀로나 시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페라다(Pelada) 산등성이를 구입하여 신화 속 올림피아의 파르나소스 산처럼 만들어 달라는 의뢰에 가우디는 그곳 지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해발 150m에 달하는 험악한 지형이라 도로를 기준으로 구획정리부터 시작했다.<그림 41> 공원 정문은 매우 독특하며 양쪽으로 헨델과 그레텔의 과자집과 같은 동화 속의 집을 연상시키는 건물이 자

19) 필립 티에보, 『가우디 예언자적인 건축가』, 시공사, p.76-p.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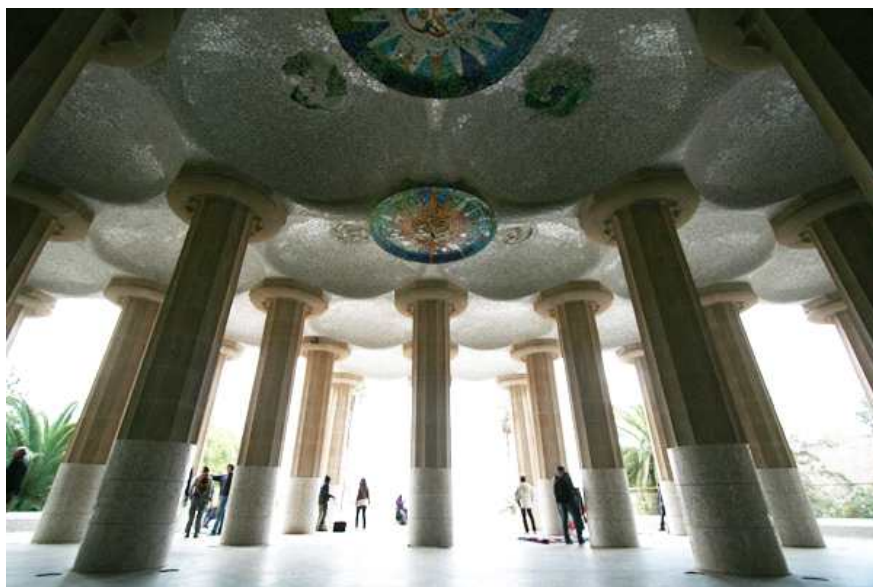
리 잡고 있다 <그림 42>. 정면으로는 광장을 받히고 있는 86개의 도리아식 기둥이 있다 <그림 43><그림 44>. 그리스극장 광장 위에서 떨어지는 빗물과 도리아식 기둥 안에 설치해 둔 하수관을 통해 떨어지는 물을 모아두는 물탱크가 밑에 설치되어 있다. 이 모아진 물은 왕들이 지나다니는 계단에 있는 세 개의 분수 중에 세라믹 재질로 된 용 조각상의 입에서 나온다. 이것은 아폴로 신에 의해 죽임을 당해 땅 속에 매장된 뱀과 용이 땅 속에 물을 지키고 있다는 그리스 신화에서 착안한 것이다 <그림 45>.²⁰⁾



<그림 41> 구엘 공원 도로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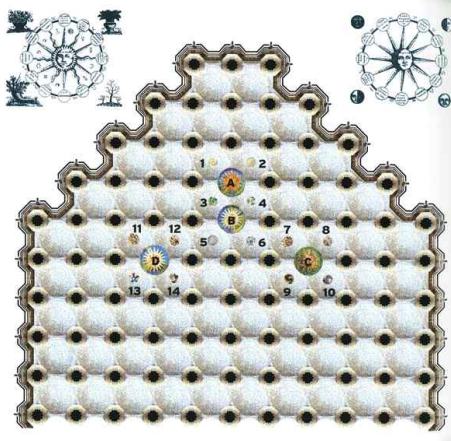


<그림 42> 구엘 공원 정문



<그림 43> 구엘 공원 도리아식 기둥

²⁰⁾ 손세관, 『안토니오 가우디 아름다움을 건축한 수도자』, 2004 p.66



<그림 44> 구엘 공원 기둥 전개도



<그림 45> 구엘 공원 분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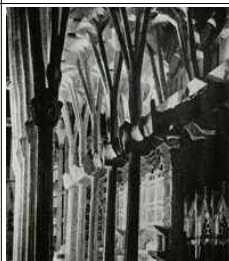
<그림 46> 사그라다 파밀리아

가우디가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모든 것을 바쳤던 사그라다 파밀리아(La Sagrada Familia 1882~1926)는 1866년에 처음 계획되었다. 성당의 건축비를 위해 성당 건축위원회가 설립되었고, 1882년 설계를 부탁받은 건축가 빌라르(F. de P. Villar y Lozano)는 좋은 취지의 계획이었기에 돈을 받지 않고 50명의 노동자와 함께 성당을 짓기 시작했다. 무조건 싸게만 지으려는 교구에 환멸을 느껴 결국 작업을 포기하고 후임자로 제자인 가우디를 추천하게 되어 가우디가 제작을 담당하게 되었다.²¹⁾ 젊은 건축가가 공사를 맡게 되었으니 건축비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가우디로 인해 빗나가게 되었다. 건축에 들어가는 재료선정도 까다롭게 선택했으며 조각 작품 하나에도 시간과 정성을 들여 제작하게 되었다. 초기에 설계된 디자인은 가우디가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통해 카탈루냐의 정신을 제대로 표현하는 목적에 의해 새롭게 바뀌게 되었다 <그림 46>.

21) 손세관, 『안토니오 가우디 아름다움을 건축한 수도자』, 2004 p.82

<표 2> 형태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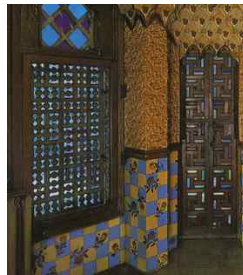
시기	작품명	형태적 특성	특징
1기 장식적 조형	엘 카프리초 (El Capricho) 1883~1885	 	-현관 위 기하학적 형태의 종탑 -영국의 건축 영향을 많이 받음 -지붕은 우리나라 서까래와 비슷한 구조
	까사 비센스 (Casa Visence) 1883~1888	 	-대각선 처리된 지붕 -수직처리된 창문 -기하학적인 형태 -모서리를 강조
	구엘 궁전 (Palau Guell) 1886~1888	 	-포물선 아치 입구와 천장 -단순한 형태의 건물 -옥상의 화려한 환기구
	테레사 수녀원 학교 (Theresan College) 1888~1890	 	-종교적 느낌의 수직형태 창 -빛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채광창 -1층과 2층의 통합한 아치형 입구
2기 조각적 조형	까사 칼벳 (Casa Calvet) 1898~1900	 	-회오리 모양으로 비틀어진 두꺼운 철재 난간 -아치형 난간

	<p>까사 벨레스구아르드 (Casa Bellesguard) 1900~19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 처리된 외벽 -부드러운 곡선처리한 내부 -정육면체 형태의 외부
	<p>구엘 공원 (Parague Guell) 1901~19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환경을 그대로 살린 경사진 도로 -물결형태의 공원벤치 -독특한 형태의 입구 -신전형태의 기둥과 돌계단
	<p>까사 바틀로 (Casa Batllo) 1904~19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면에 세워진 십자가 탑 -외부와 내부를 이어주는 듯한 물결같은 곡선 처리 -유기적 형태의 난간
	<p>까사 밀라 (Casa Mila) 1906~19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 전면에 자유로운 포물곡선 -옥상의 탑형태의 환기구
<p>3기</p>	<p>사그라다 파밀리아 (La Sagrada Familia) 1882~19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도를 상징하는 탑 -지하 예배공간의 돔 형태 -내부 구조체 그대로 노출

2) 장식적 요소

전체적으로 과거의 다양한 건축양식을 바탕으로 하여 장식적인 요소는 대문이나 외벽에 포인트 장식이나 창문에서 가우디의 정교한 솜씨를 볼 수 있다. 가우디 작품의 절정기로 갈수록 하나의 조각품처럼 건물 전체에 가우디의 독창성이 묻어나기도 한다.

가우디는 초기 작품 중에서 마누엘 비센스 이 몬타네르(Manuel Visence I Montaner)가 의뢰한 까사 비센스는 타일공장을 했던 의뢰인 덕분에 재료에 대한 부담감은 별로 없었다. 타일의 종류는 2가지가 쓰였는데 꽃무늬와 단색무늬였으며 동양적인 느낌이 나도록 체크 식으로 표현했으며, 창살의 모양은 격자 형태로 되어있어서 전체적인 느낌도 동양적이다 <그림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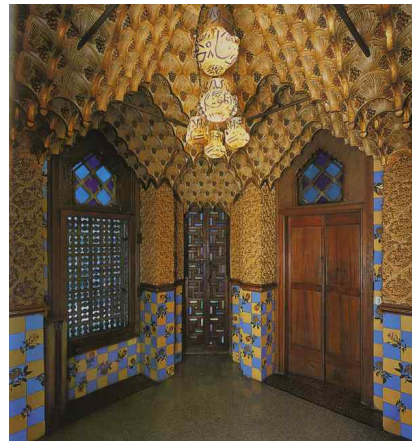


<그림 47> 까사 비센스 동양식 격자 창문

종려나무, 야자수 잎 모양을 하고 있는 철문은 매우 세밀하게 묘사하였고, 모카라베(종유석 장식)지붕과 타일로 장식한 방도 있다. 다양한 소재의 형상을 장식에 사용한 것은 후기로 갈수록 가우디 건축 장식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림 48><그림 49>.



<그림 48> 까사 비센스 야자수 잎 모양을 하고 있는 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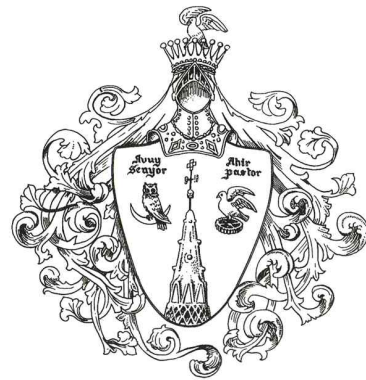


<그림 49> 까사 비센스 내부

가라프(Galaph)산 돌로 정면에 마감되어 있는 구엘 궁전은 알함브라 궁전(Alhambra Palace)과 흡사한 내부처리 방법과 아라비안 스타일의 난간장식 등이 절충주의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²²⁾ 궁전 입구를 장식하고 있는 조형물은 카탈루냐 문장으로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0><그림 51>.



<그림 50> 구엘 궁전 철재 장식



<그림 51> 구엘 궁전 카탈루냐를 상징하는 그림

환기구와 채광창은 벽돌과 조각 타일로 만들어졌으며, 삼나무와 유카리 나무로 된 격자형 천장이 있고, 장식효과를 주기 위해 치장한 나선형 철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림 52>.



<그림 52> 구엘 궁전 환기구

22) 김수진, 「안토니오 가우디의 조형성을 활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p.33

까사 벨레스구아르드(Casa Figueras Bellesguard 1900~1909)의 탑 꼭대기에는 카탈루냐의 상징색이 새겨진 십자가가 장식되어 있고, 15세기 카탈루냐 왕국 초대 국왕 마르틴 1세를 기리기 위한 깃발을 달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그림 53>.



<그림 53> 카탈루냐의 상징색이 새겨진 십자가가 탑

실내 장식에서도 유리에 색을 넣어서 장식을 하기도 했으며, 1층에 정원에는 가우디가 도자기 파편으로 최초로 모자이크 시도를 한 벤치가 있다 <그림 54>.

건축물의 중요 위치에는 테라코타 장식된 글이 적혀 있고, 돌을 쌓은 다음 모르타르를 바르는 형식으로 장식하였다. 가우디는 섬세하게 표현했던 철가공을 단순화 시키고 아치 방법의 다양성을 대담하게 시도하고 있다 <그림 55>.



<그림 54> 최초로 시도된 벨라구아르드 벤치 모자이크



<그림 55> 벨라구아르드 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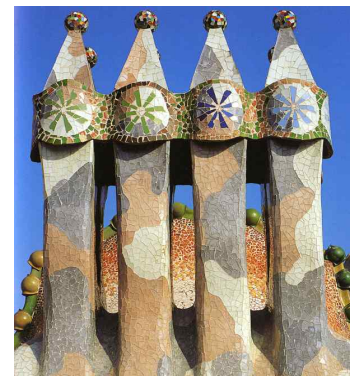
가우디의 장식적 요소와 건물 전체의 조형성을 대표하는 까사 바틀로는 여러 가지 색유리 파편과 둥근 채색 타일이 입혀져 있으며, 이 유리의 색들은 밖에서 들어오는 채광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보이도록 배치했다 <그림 56>. 건물 다락방과 붙은 지붕의 기복 있는 선은 용의 척추를 형상화 시키고, <그림 57> 마요르카 타일로 덮힌 지붕은 비늘을 연상하게 한다. 건물 정면이나 옥상에 환기구 탑과 지붕들은 유약 처리시킨 세라믹과 유리조각으로 장식하였다 <그림 58>.



<그림 56> 까사 바틀로 내부 유리장식



<그림 57> 까사 바틀로 지붕



<그림 58> 까사 바틀로 옥상 환기구 탑

거대한 물결이 술렁이는 듯한 까사 밀라는 현관과 앞마당에 벽화로 장식되어 있으며 문의 격자나 창문, 난간들은 화려한 해초의 모습을 철로 표현하고 있다. 까사 밀라의 또 다른 표현은 옥상에 있다. 특이한 모양의 굴뚝과 환기탑, 옥상 출입구는 대리석과 깨진 병 조각과 타일로 장식되어 있고, 이는 다른 건축물에서 보이는 일반 굴뚝과는 차원이 다른 조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형상은 모두 자연 속에서 찾아낸 요소를 형상화 시킨 점이 가우디의 독창성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림 59>.



<그림 59> 까사 밀라 옥상 환기구 탑

구엘 공원은 가우디의 특징적인 장식 요소가 집합되어 있는 작품이다. 그리스식 신전, 그리스 극장과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원은 광장 밑으로 신전의 기둥을 세웠다. 험악한 산악 지형 때문에 양쪽으로 산책도로를 파서 그 조각돌을 쌓아 올렸다. 도로 중간에 있는 나무하나도 뽑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면서 파도와 같은 곡선을 만들었다 <그림 60>. 가우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조각 타일 벤치는 아름다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연속되는 패턴으로 제작되어있다 <그림 61>.



<그림 60> 자연 그대로 보존한 구엘 공원 산책로



<그림 61> 구엘 공원 벤치

이 패턴의 일부는 가우디가 직접 고안해 낸 것이고, 나머지는 공원을 건설할 때 참여한 작품 중에서 선택적으로 창안된 것이다 <그림 62><그림 63>.²³⁾



<그림 62> 구엘 공원 벤치 장식 패턴

23) 김수진, 「안토니오 가우디의 조형성을 활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p.36



<그림 63> 구엘 공원 벤치 장식 패턴

가우디의 '양식의 종합체'라고 불리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카톨릭 신자인 그의 전 생애에 걸쳐 모든 힘을 쏟았으며, 성경을 기초로 한 구상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조형적 요소 중 하나로 탑의 상부에 도안된 글자는 각명과 함께 상징적 의미를 띄고 기능적으로도 조도와 울림 방지를 생각하여 설계하였다 <그림 64>. 즉 구조적인 안정성 문제와 동시에 정신성이 종교성을 획득하면서 보다 높은 차원의 상징물로 가우디의 건축 사상이 집대성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4> 사그라다 파밀리아 내부 천정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동쪽에 '탄생(Nativity)', 서쪽에 '수난(Passion)', 남쪽에 '영광(Glory)'으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면 정면에는 4개의 종탑이 세워지고 총 12개로서 12사도를 뜻하기도 한다. 정면에 '탄생'의 정면에는 3개의 문이 있는데 왼쪽부터 소망, 사랑, 믿음의 이름이 있고, 그 위에는 떠오르는 태양의 빛을 받으며, 성육신의 신비를 상징, 아기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유년 시절을 나타내는 조각상들이 세워져있다 <그림 65>.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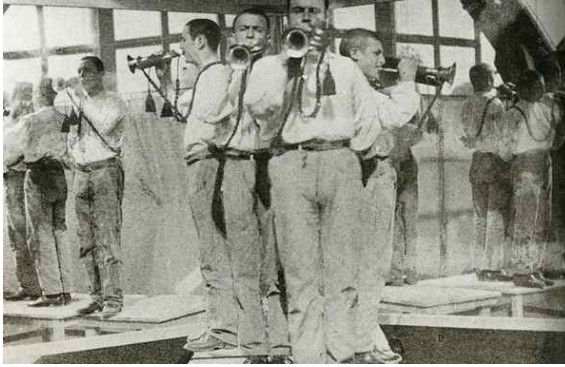


<그림 65> 사그라다 파밀리아 탄생 정문

이 조각상들은 규모면에서 놀라고, 매우 사실적인 묘사에 또 한번 놀란다. 성당 내부와 외부에는 곳곳에 자연물이나 인체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실제와 매우 흡사하고 이러한 묘사력을 이끌어 줄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사진자료와 실제 모델을 모두 석고 모형을 떠서 실물로 제작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림 66><그림 67>.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고 특히 생명체를 표현하는 것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했다. 반드시 생명의 혼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²⁵⁾ 가우디의 작업실에는 마네킹과 죽은 새나 동물들, 사람의 뼈 등이 있었으나 스페인 내전으로 인해 모두 불타 사라지고 없다.

24) 『가우디 예언자적인 건축가』 p.84

25) 『안토니 가우디 아름다움을 건축한 수도자』 p.79



<그림 66> 나팔 부는 천사 모델 사진작업



<그림 67> 나팔 부는 천사 조각품

성당에는 하늘을 나는 새들 이외에도 황소 머리, 해조류와 파충류, 도롱뇽, 달팽이, 올리브와 오렌지, 아몬드, 활짝 핀 장미 등이 조각되어 있으며 각 장면의 가장자리는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조각되어 있다 <그림 68><그림 69><그림 70>.²⁶⁾이처럼 다양한 소재와 성경을 바탕으로 한 조각품과 구조물들이 성당 전체를 장식하고 있다. 1926년 가우디의 죽음으로 1985년 건축가 조르디 보네트가 감독하면서 좀 더 빠른 진척을 보이며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68> 동물을 그대로 묘사한 장식물













<그림 69> 달팽이를 형상화 한 나선형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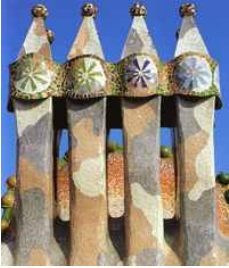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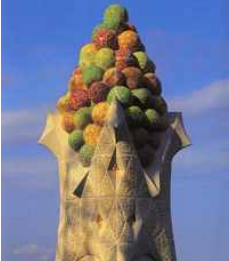


<그림 70> 사그라다 파밀리아 탑 조형물

26) 박소정, 「안토니 가우디의 모데르니스모 건축」 p.52

<표 3> 장식적 요소

시기	작품명	장식적 요소		특징
1기 장식적 조형	엘 카프리초 (El Capricho) 1883~1885			-식물과 동물을 사실적 표현한 기둥장식 -식물을 부조화한 색채타일
	까사 비첸스 (Casa Visence) 1883~1888			-식물을 모티브로한 철제장식 -모자이크로 표현된 꽃장식 타일
	구엘 궁전 (Palau Guell) 1886~1888			-나선형 철제로 장식된 아치형 입구 -조각타일로 모자이크장식한 환기구
2기 조각적 조형	까사 갈벳 (Casa Calvet) 1898~1900			-외부로 돌출된 곡선처리된 내부기둥 -기하학적 원형으로 장식된 철장식
	까사 벨레스구아르드 (Casa Bellesguard) 1900~1909			-입체적으로 표현된 스테인드글라스 -조각타일과 도자기파편으로 장식된 벤치 -아치의 다양성을 시도

	<p>구엘 공원 (Parague Guell) 1901~19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오리를 형상화한 기울어진 돌기둥 -다양한 타일조각으로 장식된 연속되는 패턴의 벤치
	<p>까사 바틀로 (Casa Batllo) 1904~19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늘형상을 한 타일로 장식된 지붕 -용 척추형태의 기복있는 지붕선 -세라믹타일과 색유리조각으로 장식
	<p>까사 밀라 (Casa Mila) 1906~19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 입구의 아르누보적 철제장식 -해초를 형상화한 철제난간 -깨진 타일과 병조각으로 장식된 옥상의 환기구탑
<p>3기</p>	<p>사그라다 파밀리아 (La Sagrada Familia) 1882~19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경을 기초로 장식한 조각품 -사제의 소지물을 모티브로한 추상적 파사드

3) 색채 표현

강렬한 지중해의 햇살로 눈부신 자연의 풍광을 느끼며 자란 가우디는 건축요소 중 색채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 건축가로 성장했다. 그의 작품에 항상 빠질 수 없는 다양한 색색의 타일들과 색유리, 도자기 파편들이 그의 색채감각을 더 빛내주었다 <그림 71>.



<그림 71> 구엘 공원 타일 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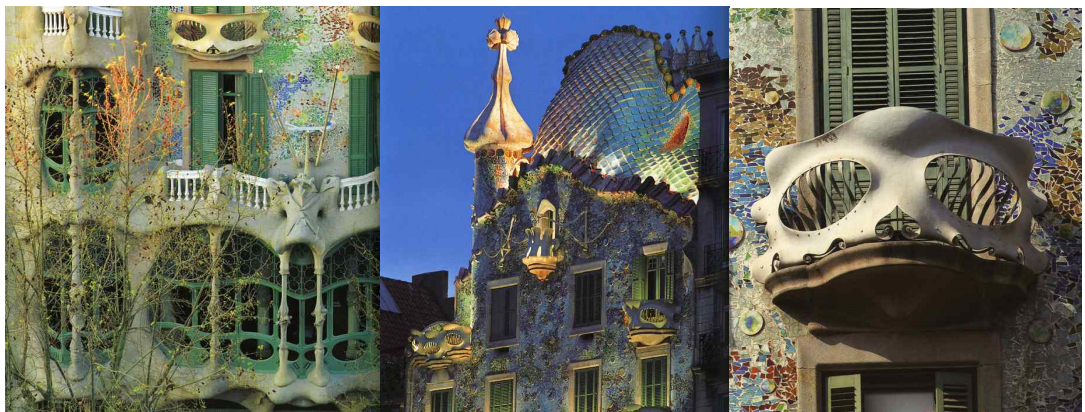
황토빛 사암과 붉은 벽돌의 포인트로 제작한 까사 빈센스는 노란색 금잔화가 그려진 타일은 녹색과 흰색의 모자이크 조합과 어우러져 장식적이면서 동양적인 느낌을 전해준다.

1888년에 제작된 구엘 궁전은 가공되지 않은 크림색의 석회석 벽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옥상의 환기탑은 동화 속에 나오는 크리스마스 트리나 고깔모자 같은 느낌과 다양한 색상의 타일로 포인트를 주었다.

까사 칼벳의 건물 외부는 사암과 철 자체만의 색채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부는 돌과 벽돌, 파란색과 금색계열의 조화로 실내 분위기를 한껏 화려하면서도 차분한 색조로 이루어져 있다.

까사 벨레스구아르드는 다채로운 색이 들어있는 돌로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어서 한층 무게감을 전해준다. 내부는 벽과 천장에 흰 회반죽으로 깨끗하고 맑게 표현하였으며 벽의 하단부에는 푸른색과 노란계열이 섞인 봉황과 용의 그림이 그려진 타일로 둘러져 있다. '아름다운 경치'라는 의미를 가진 이 작품의 특징 중 하나는 카탈루냐 전통적 고딕양식의 창이 있고 다채로운 색상의 스테인드글라스가 있다.

가우디의 작품 중에서 가장 화려한 색채를 보여주는 까사 바틀로는 건물 지붕에 붉은색과 청색의 다양한 변화로 눈을 사로잡는다. 정면에 보이는 창문들은 녹색으로 눈을 편안하게 해주며 건물 외벽에는 다양한 색유리 조각들이 빛을 받으면 무지개 빛처럼 반짝인다 <그림 72>.



<그림 72> 까사 바틀로 정면

실내에는 깔끔하게 크림색 벽과 푸른 타일들이 붉은 나무들과 어울려 조화롭다. 난로가 있는 쉼터는 붉은색과 황토색의 조화로 따스함을 전해주고, 거실 곳곳에 있는 색유리들은 창의 물결모양과 함께 바다 빛을 느끼게 해준다 <그림 73>.

까사 밀리의 벽면은 가라프산의 크림색 대리석과 비라프랑카 산의 황색 돌로 되어 있고, 테라스의 철 가공물의 색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옥상의 환기탑과 굴뚝은 흰색과 황색계열로 모자이크 되어있고 지붕은 크림색 타일로 이루어져있다.



<그림 73> 까사 바틀로 난로와 벤치

구엘 공원 정면에 있는 건물들은 모두 청색과 흰색의 타일이 입혀져 있다. 벽면은 구엘 공원의 도로공사 당시 나온 주변의 돌들로 만들어졌고, 지붕과 창틀에는 유광의 세라믹 타일을 사용해서 모자이크 처리 하였다. 전반적인 공원의 색상은 흰색을 바탕으로 다양한 색의 세라믹 타일조각을 섞어 썼으며 황토빛 돌로 산책로 기둥과 천정을 꾸며서 색상 대비를 이루게 하였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전체 채색을 하려는 가우디의 계획과 다르게 실현되지는 않았다. 첨탑 상부의 채색타일로 강조시킨 조형물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사암의 느낌 그대로를 표현했다. 내부는 벽화 예상부위를 제외하고는 벽 원래의 색깔인 돌색이 그대로 드러나며, 스테인드글라스의 색채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²⁷⁾

27) 김수진, 「안토니오 가우디의 조형성을 활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p.40

<표 4> 색채 표현

시기	작품명	색채 요소		색채 표현	
1기 장식적 조형	엘 카프리초 (El Capricho) 1883~1885		-지붕과 벽에 타일장식		-녹색과 노란색의 조화
	까사 비센스 (Casa Visence) 1883~1888		-외벽 타일장식 -내부 천정 장식		-황토색과 녹색, 노란색의 조화
	구엘 궁전 (Palau Guell) 1886~1888		-옥상 환기구 타일조각 모자이크		--황금색 포인트와 타일조각의 다양한 색상의 조화
2기 조각적 조형	까사 칼벳 (Casa Calvet) 1898~1900		-내부 벽 타일 모자이크 -실내 장식		-황금색과 파란색의 조화
	까사 벨레스구아르트 (Casa Bellesguard) 1900~1909		-실내 장식 -스테인드글라스		-붉은색과 노란색의 조화 -실내 파란용과 노란색 타일의 조화
	구엘 공원 (Parague Guell) 1901~1914		-색채유리조각 모자이크 -세라믹 타일 모자이크		-도자기 파편의 다양한 색상조화
	까사 바틀로 (Casa Batllo) 1904~1906		-지붕과 환기구탑의 세라 믹 타일 모자이크 -실내 색유리조각 포인트		-파란색과 녹색, 황토색의 조화
	까사 밀라 (Casa Mila) 1906~1910		-사암색 -실내 회반죽		-흰색과 사암색의 조화 -철의 색으로 포인트
3기	사그라다 파밀리아 (La Sagrada Familia) 1882~1926		-실내 천정채색 -상징탑의 타일 모자이크		-노란색과 붉은색 계열의 조화

4) 재료와 질감의 특성

가우디의 작품에서는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형태 뿐만 아니라 재료 면에서도 그 특징이 나타난다. 사그라다 파밀리아와 구엘공원 등 가공되지 않은 벽돌이나 사암을 그대로 사용하여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까사 빈센스는 동양적인 느낌이 나는 타일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아랍적인 분위기를 연출했고 나무와의 대비를 이루어 이색적인 느낌을 준다.

가우디만의 특징적 요소로 자리 잡은 색유리, 도자기 파편으로 구성된 모자이크는 까사 벨레스구아르드의 정원벤치에서 시작하여 후기 작품으로 오면서 그 비중은 더 커졌다. 이전에 건축물들에서는 타일조각을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마무리 하였다.

차가운 느낌의 철과 돌이 주된 재료로 쓰인 구엘 궁전은 다양한 색상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옥상의 환기탑이 이색적인 조화를 이룬다. 1900년대 이전에 건축물들에서는 주로 화려한 철 구조물을 이용하여 건물을 장식했으나 까사 벨레스구아르트에서는 회반죽을 이용하여 아르누보적인 요소를 나타내면서 철의 사용을 극도로 단순화 시켰다.

마요르카 타일로 제작된 까사 바틀로는 몬주익산 사암과 색유리 파편, 벽돌, 세라믹과의 조합으로 동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자연의 느낌을 그대로 쓴 사암과 색유리와 조명의 조합으로 다양한 분위기를 풍긴다.

사암 느낌을 그대로 나타낸 까사 밀라는 난간에 화려한 철재장식으로 색상대비와 함께 더욱 돋보이게 했으며, 옥상에 채색 타일로 장식된 환기구 탑과 조화를 이루어 건물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적인 조각품으로 느껴진다.

공원도로 정비에서 파넬 막돌을 이용하여 산책로 기둥을 세우면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된다. 공원 정문에 세워진 건축물은 세라믹타일과 도자기 파편을 활용하여 동화 속 과자 집 같고, 그리스 신전과 같은 곡선 처리된 계단과 도리아식 기둥은 주변 산책로와 대비를 이루어 이색적인 분위기를 나타낸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사암 그대로를 사용하여 따뜻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을 전해주면서 화려한 조각장식에 경건함을 느끼게 한다. 또한 가우디의 건축 작품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조형요소 중 하나인 채색 타일은 탑 부분을 장식해준다. 또

한 도자기 파편을 이용한 모자이크 형식은 벨레스구아르드의 정원벤치장식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며, 그 전에는 다양한 무늬가 있는 타일을 규칙적으로 배치시켰다.

<표 5> 재료와 질감의 특성

작품명	재 료	질감특징	작품명	재 료	질감특징
엘 카프리초 (El Capricho) 1883~1885	채색타일 목재 채색유리 붉은색 기와 황토색 벽돌	-부조장식 타일과 돌의 대비	까사 벨레스구아르드 (Casa Bellesguard) 1900~1909	슬레이트 질감 의 돌 도자기 파편 벽돌 채색유리	-거친 느낌의 돌과 타일, 돌조각으로 같은 색 계열 로 섞어서 사용 -도자기 파편 장식과의 대비
까사 비센스 (Casa Visence) 1883~1888	타일 철 황토색 돌 붉은색 벽돌	-채색 타일과 내부 목조의 대비	구엘 공원 (Parague Guell) 1901~1914	황토색 돌 세라믹 타일 벽돌	-공원의 현장에서 채집한 재료를 그대로 활용하여 조화를 이룸 -세라믹 타일 조각과 거친 느낌의 황토색 돌의 대비
구엘 궁전 (Palau Guell) 1886~1888	벽돌 목재 철 석회석 타일조각 가리 프 산 의 석재	-차갑게 느껴지는 돌과 철 을 주재료로 사용	까사 바틀로 (Casa Batllo) 1904~1906	몬주익산 사암 채색유리 채색등근타일 벽돌 마요르카 타일 세라믹	-사암색과 여러색의 색유 리 파편의 조화
테레사 수녀원 학교 (Theresan College) 1888~1890	붉은색 벽돌 황토색 돌 철	-황토색 돌과 붉은 벽돌의 조화	까사 밀라 (Casa Mila) 1906~1910	철재 채색타일 유리병 조각 비라프랑카 산 돌 콘크리트 벽돌	-사암색과 옥상환기탑의 채색 타일의 조화
까사 칼벳 (Casa Calvet) 1898~1900	몬주익산 사 암 철재 벽돌 타일 목재	-철 장식 활용 -거친 사암 외벽에 벽돌과 타일로 된 기둥의 조화	사그라다 파밀리아 (La Sagrada Familia) 1882~1926	사암 타일	-사암의 따뜻한 색감과 탑 의 타일조각의 대조

Ⅲ. 가우디 작품을 응용한 창의성 미술교육

1. 창의적 표현과 미술교육

1) 창의성의 개념

창의성은 근래의 심리학적 연구에 의해서 누구에게나 잠재하는 보편적, 기본적인 지적 능력의 하나로 그 특성이 알려지게 되었다.²⁸⁾ 즉,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며 창의적 사고에 속하는 독창성, 유창성, 유연성, 구체성 등 다양한 생각을 '생산'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조작적 사고력의 하나이다. 또한 지구상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축적된 정보로부터 새로운 조합, 재결합, 재정리하는 것이다. 이미 과거에 모든 것들은 '창조'되어 있었고, 이미 있는 것들을 인간들은 '발견' 했다.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이미 있는 것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합하는 것이다.

토랜스(E. Paul Torrance)는 창의성에 대해 "창의성이란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 다른 관점,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²⁹⁾ 즉, 모든 일에 고정관념을 버리고 문제에 대해 새로운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창의성이라는 것이다.

창의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이상하게 생긴 것을 만들어낸다거나, 비인습적으로 소속된 사회의 규범을 거절한다거나,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만이 창의적인 행동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2) 창의성 미술교육의 필요성

최근 들어 전 사회적으로 창의력의 함양이 강조되고 있다. 그 이유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만 고정된 시각을 가지고 생활하며 어떠한 일이더라도 짜여진 공식처럼 빨리 일을 처리하는 것에만 몰두되어 있기 때문이다. 창의력의 가장 큰 장애는 사고가 관습, 관례, 관용에 굳어 있는 사고의 경직성이다. 어른들의 창의력

28) 임정기,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p.37

29) 전경원, 『창의력 계발을 위한 유아미술교육』 p.59

부족은 지나친 관례화의 강화 과정에서 쇠퇴한 결과다.³⁰⁾ 어릴 적 자유분방한 상상력과 호기심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던 아이는 어른들의 고정관념과 사회풍토로 인하여 점점 쇠퇴된다.

학교에서 말 잘 듣는 학생은 창의적인 학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길포드(Guilford)는 인간의 사고를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의 두 양식으로 구분하였는데 주변의 변화를 잘 인식하고 말 잘 듣는 학생은 수렴적 사고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창의력은 발산적 사고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발산적 사고가 풍부하게 작용하여 창의력이 높은 학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발산적 사고는 창의성 미술교육으로 쉽게 생성될 수 있다.

1950년대 이후로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해온 학자들은 창의성은 교육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누구나 창의성 교육을 받고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이미 창의가 아닌게 된다. 창의성은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호기심, 상상력, 감수성, 성취동기, 내재적 동기 등 여러 지적, 정적, 사회적인 특성들의 종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창의성 교육만으로 육성하기에는 벽차고 복합적인 특성이기 때문이다.³¹⁾ 즉, 개인의 특성 차이에 따라서 창의성 교육 후 결과는 달라지며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미술교육이 갖는 특성으로는 조형성, 창의성, 정서성이 있으며 예술이 갖는 공통적 특성은 창의성과 정서성이고, 조형성은 미술만이 갖는 특성이다. 미술의 형식면에서 조형성이 있다면, 그 형식이 담겨지는 내용면에서 창의성을 들 수 있다. 미술을 통해 조형성 안에서 자유로운 사고를 표현할 수 있다면 창의성을 계발시킬 수 있다.

2. 가우디 조형언어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

'건축계의 이단아'라고 불리는 가우디의 상상력과 창의성은 과연 어떻게 발달했을까?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한 재료와 조형언어로 예술품의 가치를 높였다. 그의 상상력과 창의성은 새로운 발명이 아닌 고정관념의 탈피로 인해 자유로운 생각을 하게 되

30) 정범모, 『창의력이란』, p.35

31) 정범모, 『창의력이란』, p.256

었다.

가우디의 창의성은 이전에 있던 건축물과는 달리 예술성과 기능성, 조형성을 창조해 낸 원동력이다. 소재에 대한 새로운 조합과 재료에 대한 수용성으로 예술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이러한 가우디의 조형언어는 미술교육에서 창의성을 발전시킬 많은 가능성을 던져 준다. 미술에서 건축뿐만 아니라 회화, 조소, 디자인 등 전 영역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이러한 창의성은 실생활에서도 많이 필요로 한다.

가우디는 이전의 역사에서 보여진 건축 양식을 받아들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새로운 조합을 하기 시작했다. 가우디 작품의 1기에 속하는 장식적 조형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건축 양식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양식인 아르누보에 맞춰 기능적, 장식적 요소에 새로운 시도를 통해 지금의 작품들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작품들이 나오기 까지 많은 요소들이 가우디의 창의성에 바탕이 되었다. 우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작은 요소 하나까지 세밀하게 관찰하며 소중히 여긴 것이 아르누보양식과 만나 화려한 조형요소로 탄생했다. 가우디가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란 모든 것들이 가우디의 예술작품형성에 가장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리우돔 마을의 조그마한 시골집에서 여름이면 관찰할 수 있었던 자연 형태의 아름다움과 타라코나성당의 오래된 스테인드글라스를 보며 감명을 받은 것이 가우디 건축에 있어서 색채요소를 끌어들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는 미술교육에서 시각문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한다.

자연을 통해서 광물, 동물이나 식물 세계에 아름다운 형태가 탄생된다는 사실을 터득하고, 이를 실생활에서 유용하고 기능적인 것들을 만드는데 적용하였다. 까사 바틀로에서 볼 수 있듯이 건축에 어울리는 가구하나까지 자연과 인체의 요소를 이용해 인체 공학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요소는 구엘 공원에 곡선을 이루는 벤치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까사 밀레와 까사 바틀로에서 나타난 조각적 조형은 장식적 요소에서 발전하였으며 이는 건물 전체에 유기체적인 느낌의 곡선을 적용함으로써 창의적 요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재구성'을 통해 작품의 독창성을 한층 돋보이게 했다. 기존의 건축의 고정관념을 탈피한 새로운 시도가 이전에 없는 새로운 양식으로 발전시켰다.

가우디는 "독창성이라는 것은 자연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의 근원인 신이 창조한 자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환경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건축가였다.

위 내용을 토대로 가우디 조형언어를 미술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최근 많은 사회 문제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속도 경쟁만 하게 되었고, 대량 생산과 똑같은 패턴으로 인해 모두가 획일화 되어가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주지교과 위주의 입시경쟁만 하게 되었고 청소년들의 정신적인 측면과 이상, 가치 등을 경시하고 감정과 정서가 메마르게 되었다. 앞만 보고 달려온 현대인과 청소년들을 위해 미술교육을 통해 정서와 감정을 되살리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다양한 창의적 미술교육은 정서를 깨닫게 하고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다.

제 7차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미적 체험 활동, 표현 활동, 감상 활동에 맞게 가우디 조형언어를 미술교육에 활용해 본다.

1) 미적 체험 활동

미적 체험 활동을 통해 미술활동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표현활동과 감상활동에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미적 체험과 표현, 그리고 감상이 서로 연계되고 상호영향을 주어 학습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표 6> 가우디의 건축세계 학습 지도안 1

영역	미적 체험	수업주제	가우디 건축작품의 비밀		
단원명	가우디의 건축세계	차시	1/2	대상	중학교 2학년
학습형태	이론 + 실기수업	소요시간		45분	

학습목표	1. 가우디 작품의 숨어있는 비밀을 밝혀낼 수 있다. 2. 중력에 대한 가우디의 아이디어를 몸소 체험할 수 있다. 3. 아치공법에 대한 중력을 느낄 수 있다.			
준비물	교사		학생	
	가우디 작품자료, 아치공법에 대한 자료		필기도구, 사진기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준비 및 발상	-5-6명 정도 조를 나누어 모듈별로 체험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가우디의 작품을 보여 주면서 그 당시 시대에 건축 공법 상황을 알려 준다.	-교사의 주의사항을 듣고 모듈별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에 임한다. -높은 건축물을 설계하기 힘든 시기를 이해할 수 있다.	5	- 필기도구와 사진기를 잘 챙긴다.
탐색과 토론	-가우디가 건물을 설계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학생들에게 질문한다. -가우디의 건축 공법인 모래주머니를 이용한 중	-모듈별로 어떤 방법으로 설계했는지 의논해 본다. -아치의 모양으로 무게 배분이 되는 원리를 이	35	- 모듈별로 시끄럽지 않게 친구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다.

	<p>력 테스트와 아치모양에 대하여 알려주고 모양에 따라서 힘이 배분되는 원리를 알려준다.</p> <p>-아치의 모양을 직접 몸으로 만들어가며 체험해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직으로 서있다. ● 다리를 어깨넓이 정도 벌려서 아치모양을 만든다. ● 팔 넓이 정도로 다리를 벌려서 아치모양을 만든다. <p>-각각 만든 아치의 높이와 넓이에 따라서 중력을 느껴보게 한다.</p> <p>-모듬별로 아치의 모양을 하고 있는 학생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도록 한다.</p>	<p>해하고 가우디의 건축 공법인 중력을 이용한 아치모양에 대해서 이해하고 감상한다.</p> <p>-자신이 직접 아치의 모양을 몸으로 만들어보면서 중력의 힘을 몸소 느껴본다.</p> <p>-모듬별로 아치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다.</p>		
--	--	--	--	--

정리	<p>-학생들이 직접 찍은 사진들을 함께 모아서 보고 다음시간에 제작할 건축물 상상도에 대해 의논할 시간을 준다.</p> <p>-다음 수업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p>	<p>-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들을 보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어 본다.</p> <p>-다음 수업을 위해 마무리 하고 교사의 수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경청한다.</p>	5	<p>-학생들이 열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p>
----	--	---	---	------------------------------------

2) 표현 활동

가우디의 작품의 장식적인 요소와 건축 공법을 표현 활동에 이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가우디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표 7> 가우디의 건축세계 학습 지도안 2

영역	표현 활동	수업주제	가우디 건축작품의 비밀		
단원명	가우디의 건축세계	차시	2/2	대상	중학교 2학년
학습형태	이론 + 실기수업	소요시간		45분	
학습목표	<p>1. 가우디 작품의 숨어있는 비밀을 밝혀낼 수 있다.</p> <p>2. 가우디의 아치 공법을 이용하여 건축물을 디자인할 수 있다.</p>				

준비물	교사		학생		
	가우디 작품자료		도화지, 직접 촬영한 사진, 가위, 풀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준비 및 발상	-5-6명 정도 조를 나누어 모둠별로 체험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지난시간에 촬영한 사진을 재료로 모둠별로 건축물 상상도에 대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시간을 준다.	-교사의 주의사항을 듣고 모둠별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에 임한다. -가우디의 건축 공법인 아치형태를 한 자신의 사진을 가지고 상상도 스케치를 한다.	5	-스케치 도구와 사진을 잘 챙긴다.	
탐색과 토론	-모둠별로 건축물을 디자인 하도록 시간을 준다. -사진을 이용하여 디자인 한 건축물에 풀라주 기법으로 붙이도록 한다.	-모둠별로 건축물 스케치를 한다. -풀라주 기법을 이용하여 건축물에 붙인다.	35	-시끄럽지 않게 모둠별로 지도한다.	
정리	-모둠별로 디자인한 건축물 상상도를 가지고 발표	-모둠별로 나와서 학생들에게 디자인한 건축물 상	5	-뒷정리를 잘 하도록	

	할 시간을 준다. -평가는 학생들의 투표로 독창적인 작품을 뽑는다. -다음 수업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상도를 가지고 발표한다. -다음 수업을 위해 마무리 하고 교사의 수업계획 에 대한 설명을 경청한다.		지도한다.
--	---	--	--	-------

<표 8> 가우디의 모자이크 학습 지도안

영역	표현 활동	수업주제	가우디와 우리나라의 모자이크 기법		
단원명	모자이크	차시	1/1	대상	중학교 2학년
학습목표	1. 전통 모자이크 기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2. 가우디의 모자이크 기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조각보와의 차이를 구분해 낼 수 있다.				
준비물	교사		학생		
	가우디의 모자이크 작품, 전통 모자이크 기법 자료, 우리나라 조각보 자료, PPT		마분지, 검정도화지, 색종이, 잡지, 가위, 칼, 자, 풀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p>준비 및 발상</p>	<p>-제작 시 필요한 재료를 충실히 준비 했는지 검사하고 제작 시 유의 점을 알려준다.</p>	<p>-준비물을 점검하고 표현 활동에 필요한 유의 점을 숙지한다.</p>	<p>5</p>	<p>-제작 시 필요한 재료를 충실히 준비했는지 검토한다.</p>
<p>구상과 표현</p>	<p>-가우디의 작품과 외국의 전통 모자이크, 우리나라의 조각보와의 차이를 보여준다.</p> <p>-가우디의 모자이크 기법의 시초인 전통 모자이크 기법에 대해 알려준다.</p> <p>* 전통 모자이크 기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이크의 개념 - 모자이크 방법 - 다양한 모자이크 - 이탈리아 프리올리 전통 모자이크 워크샵에 관한 자료를 보여준다. <p>* 가우디의 모자이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우디 작품속의 모자이크 	<p>-가우디의 작품과 다른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모자이크 작품을 구상한다.</p> <p>-전통 모자이크와 가우디의 모자이크에 관한 이론을 이해한다.</p> <p>-전통 모자이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p> <p>-가우디의 모자이크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p>	<p>35</p>	

	<p>- 가우디만의 모자이크 유형</p> <p>* 우리나라의 조각보 - 조각보의 의미 - 조각보 제작 방법 - 다양한 조각보</p> <p>* 모자이크를 이용한 작가의 작품 감상</p> <p>- 가우디의 모자이크 방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름을 넣은 컵받침 아이디어 스케치 및 디자인을 한다.</p> <p>① 모자이크 재료 수집 ② 스케치 ③ 원재료를 크기에 맞춰 재단하기 ④ 붙이기 ⑤ 완성</p> <p>-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순회지도 하며 학</p>	<p>- 우리나라의 조각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p> <p>- 자신의 이름을 넣어 가우디 모자이크 방법을 스케치하여 작품을 제작한다.</p>		
--	---	---	--	--

	생들과 의견을 나눈다.			
정리	<p>-가우디의 모자이크 특징을 잘 이해했는지 학급 전시를 통해 학생들과 의견을 나눈다.</p> <p>-다음 수업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p>	<p>-자신이 만든 작품을 학급 전시를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눈다.</p> <p>-다음 수업을 위해 마무리 하고 교사의 수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경청한다.</p>	5	<p>-정리 정돈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작품을 소중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p>

3) 감상 활동

<표 9> 가우디의 작품 감상 학습 지도안

영역	감상 활동	수업주제	가우디의 작품세계		
단원명	가우디의 작품세계	차시	1/1	대 상	중학교 2학년
학습목표	1. 마인드 맵을 응용한 예술의 분류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2. 가우디 작품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3. 가우디의 작품과 전통 모자이크, 조각보의 차이를 알고 친구들의 작품을 비평할 수 있다.				
준비물	교사		학생		
	환경조각 감상 PPT		필기도구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 간(분)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준비 및 발상	-마인드 맵을 응용하여 예술의 분류표를 보여준다. -가우디의 작품이 어디에 속하며, 작품의 기법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들어있는지 알려준다.	-예술의 분류를 구분할 수 있다. -가우디의 작품을 전체적으로 보며 예술의 분류를 통해 구분할 수 있다.		5	PPT를 감상한다.
감상 및 토론	-PPT를 통해 여러 가지 가우디의 작품을 보여준다.	-교사의 설명에 따라 여러 가지 가우디 작품을 감상한다.		35	

	<p>-가우디 작품에 들어있는 요소 중에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알려준다.</p> <p>*가우디 작품의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태적 요소 -장식적 요소 -색채 표현 -재료와 질감의 특성 <p>-지난 시간에 제작한 건축물 디자인과 모자이크를 응용하여 만든 컵받침을 토대로 가우디의 특징을 이해하였는지 발표시킨다.</p> <p>*아치 공법과 중력 체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치 공법을 몸으로 직접 표현하고 중력을 체험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아치모양의 자세를 취한 후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건축물을 	<p>-가우디 작품의 특징을 알 수 있다.</p> <p>-자신이 만든 작품을 발표한다.</p> <p>-자신이 만든 작품을 가지고 가우디 작품과 비교하여 비평한다.</p>	<p>-학생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한다.</p>
--	---	--	---------------------------------------

	<p>디자인 한다.</p> <p>*가우디의 모자이크와 전통 모자이크, 우리나라 조각보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다.</p> <p>-가우디의 모자이크</p> <p>-전통 모자이크</p> <p>-우리나라 조각보</p>			
정리	<p>-자신이 만든 작품과 친구들이 만든 작품을 보며 가우디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주지시킨다.</p> <p>-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학생들의 작품을 교내 전시 공간에 전시하고 마무리 한다.</p>	<p>-가우디의 작품을 이해하고 친구들의 작품 감상 소감을 발표한다.</p> <p>-자신들의 작품을 교내에 전시하고 다른 학생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마무리 한다.</p>	5	<p>-전시를 통해 다른 학생들의 작품을 존중하고 자신의 작품에 대해 자부심을 갖도록 한다.</p>

3. 창의성 미술수업의 교육적 가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미술은 상상력을 키워주고 우리 감각체계를 새롭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³²⁾ 우리가 특정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활동을 경험하고 느끼는 모든 것을 지각하도록 해주는 능력은 미술을 통해서 키울 수 있다. 이러한 창의성 넘치는 미술교육은 예술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큰 의의를 두고 있다.

1) 예술적 측면

미술교육은 예술적 측면에서 창의적인 예술가를 양성하는데 의의가 있다. 예술가는 미래사회의 주역이며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문화를 창조해내는 역할도 함께 한다. 에스파냐의 안토니오 가우디 또한 바르셀로나의 관광명소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예술가의 작품으로 문화를 형성하고 국가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 사회적 측면

미술교육의 사회적 측면에서 창조적인 문제해결로 디자인에 적용된 사례는 1919년부터 1930년대 초까지 나타난 독일 바우하우스(Bauhaus)가 가장 대표적이다.

'바우하우스(Bauhaus)'라는 이름은 독일어로 '집을 짓는다'는 뜻의 하우스바우(Hausbau)를 도치시킨 것이며, 1919년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가 미술학교와 공예학교를 병합하여 설립하였다. 바우하우스의 주된 이념은 건축을 주축으로 삼고 예술과 기술을 종합하려는 것이었다. 바이마르에서 출발한 바우하우스에서는 당시 유럽에서 활동하던 미술가와 건축가들을 영입했으며, 요하네스 이텐(Johannes Itten), 폴 클레(Paul Klee), 오스카 슐레머(Oskar Schlemmer),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라이오넬 파이닝거(Lyonel Feininger)가 있다.

바우하우스의 목표는 사회적 중요성을 띠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높은 기술적인 능

32) Elliot W. Eisner, 『예술교육론』 P.6

력과 미적 안목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즉, 학생들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경험적으로 실험하면서 해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디자이너처럼 사고하는 과정 속에서 경제적, 구조적, 인간 환경공학적인 측면과 미학적인 측면과 같은 다양한 양상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IV. 결 론

20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에는 감정과 정서가 메마르고 자연환경의 외면을 일삼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미술 수업은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시대 흐름 속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창의력을 꼽을 수 있는데,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현대 미술은 그 특성상 창의성을 우선시 한다.

안토니오 가우디의 건축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그는 자연환경의 작은 것 하나까지 소중히 여기며 누구보다도 주변 환경을 고려하면서도 독창적인 건축물을 제작하였고, 정해진 틀 속에서 똑같은 것 하나 없이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낸 창의적인 건축가로 꼽히고 있다. 창의성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이다. 기존의 형식 속에서 재구성을 통한 다양한 양식을 발견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안토니오 가우디의 작품이 창의성을 인정받고 있다. 안토니오 가우디의 조형성을 통해서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춰 창의성을 계발하는데 초점을 두면서 더불어 조형능력도 동시에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작가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기법 연구를 기준으로,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발상과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의 미술교육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가우디는 고전미술을 토대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작품을 제작하였으며, 기존의 건축물과는 다른 장식적 요소와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 예술가이다. 이러한 점은 창의성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고, 기존의 표현기법에만 치중되었던 미술교육을 탈피하여 더 많은 연구가 되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지도안을 제시한 본 연구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3가지 영역 즉, 미적 체험활동, 표현활동, 감상활동을 토대로 본 연구에 관련하여 중학교 미술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였다.

가우디의 중력을 이용한 아치 공법과 타일조각 모자이크 기법은 가우디의 대표적인

특징으로서 건축에서 갖는 기법적 요소가 미술교육으로 이어져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우디의 작품에 관련하여 제시하였지만 또 다른 건축물과 기타 상징물로 확장시켜 보는 것도 효율적인 미적 체험과 함께 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로 교실에서 하는 수업 이외에 다양한 미적 체험으로 박물관과 연계하여 수업을 하기도 하며, 작가와 미술관, 학교의 연계로 작가의 기법 체험 등 새로운 미술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전의 교실에서 주입식 교육이 아닌 현대미술에 나타나는 다양한 표현 방식과 창의적인 미술교육 방법에 대해 모색하였다. 21세기는 시각문화의 형성으로 그 중심에는 미술이 있다. 창의적 미술교육은 가우디의 조형성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상, 느낌, 감정, 성격, 정서, 경험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개성을 발휘함으로써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창의성 외에 새로운 시각을 마련해 주기 위해 교과 과정에 대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시각적 이해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적 접근을 통해 미적 정보를 선택하고 읽어낼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술을 통한 인간 교육과 생활 속의 미술교육이 되어 효율적인 지도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표 목 차

<표 1> 안토니오 가우디 연보	12
<표 2> 형태적 특성	23
<표 3> 장식적 요소	33
<표 4> 색채 표현	38
<표 5> 재료와 질감의 특성	40
<표 6> 가우디의 건축세계 학습 지도안 1	44
<표 7> 가우디의 건축세계 학습 지도안 2	47
<표 8> 가우디의 모자이크 학습 지도안	49
<표 9> 가우디의 작품 감상 학습 지도안	53

도 판 목 차

<그림 1> 파리 만국박람회 청색관, 1900	5
<그림 2> 아르누보 빙 전시관, 1900	5
<그림 3> 연철 받침대를 위한 시안, 1872	5
<그림 4> 엑토르 기마르 지하철 역 입구, 1900~1	5
<그림 5> 빅토르 오르타 타셀하우스, 1893~95	6
<그림 6> 빅토르 오르타 타셀하우스 현관, 1893~95	6
<그림 7> 빅토르 오르타 타셀하우스 스테인드글라스 1893~95 와 아우구스트엔텔 엘비라 사진 작업실 1897-98	6
<그림 8> 우끼요에	7
<그림 9> 카츠시카 호쿠사이 1760-1849	7
<그림 10> 티퍼니 스튜디오 '잠자리' 탁자용 전등 1900	7
<그림 11> 루이 샬롱 '수련 요정' 꽃병 1898	7
<그림 12> 타라고나 성당	9
<그림 13> 타라고나 성당	9
<그림 14> 가우디 작업실	10
<그림 15> 가우디의 중량작업	10
<그림 16> 가우디의 중량작업과 담채화	10
<그림 17> 까사 빈센스	14
<그림 18> 까사 빈센스 난간	14
<그림 19> 타지마할	14
<그림 20> 용산 이슬람사원	14
<그림 21> 까사 빈센스 금잔화와 금잔화 형상의 채색타일	14
<그림 22> 까사 빈센스 내부	14
<그림 23> 구엘 궁전 내부	15

<그림 24> 구엘 궁전 돔형식의 천정	15
<그림 25> 구엘 궁전 환기구와 채광창	15
<그림 26> 테레사수녀원	16
<그림 27> 테레사수녀원 내부	16
<그림 28> 테레사수녀원 전개도	16
<그림 29> 까사 바틀로 옥상에서 1, 2층을 연결하는 용의 척추를 형상화한 계단 ...	17
<그림 30> 까사 바틀로 곡선 처리된 창문	18
<그림 31> 인체 공학적으로 제작된 의자	18
<그림 32> 공기의 흐름을 유도한 구조	18
<그림 33> 까사 바틀로 내부 환풍구	18
<그림 34> 까사 바틀로 내부	18
<그림 35> 까사 바틀로 거실	19
<그림 36> 까사 바틀로 옥상 지붕	19
<그림 37> 까사 밀라 중앙	19
<그림 38> 까사 밀라	19
<그림 39> 까사 밀라 난간 철재 장식	20
<그림 40> 까사 밀라 옥상 환기구 조형물	20
<그림 41> 구엘 공원 도로정비	21
<그림 42> 구엘 공원 정문	21
<그림 43> 구엘 공원 도리아식 기둥	21
<그림 44> 구엘 공원 기둥 전개도	22
<그림 45> 구엘 공원 분수대	22
<그림 46> 사그라다 파밀리아	22
<그림 47> 까사 빈센스 동양식 격자 창문	25
<그림 48> 까사 빈센스 야자수 잎 모양을 하고 있는 철문	25
<그림 49> 까사 빈센스 내부	25
<그림 50> 구엘 궁전 철재 장식	26

<그림 51> 구엘 궁전 카탈루냐를 상징하는 그림	26
<그림 52> 구엘 궁전 환기구	26
<그림 53> 카탈루냐의 상징색이 새겨진 십자가 탑	27
<그림 54> 최초로 시도된 벨라구아르드 벤치 모자이크	27
<그림 55> 벨라구아르드 아치	27
<그림 56> 까사 바틀로 내부 유리장식	28
<그림 57> 까사 바틀로 지붕	28
<그림 58> 까사 바틀로 옥상 환기구 탑	28
<그림 59> 까사 밀라 옥상 환기구 탑	28
<그림 60> 자연 그대로 보존한 구엘 공원 산책로	29
<그림 61> 구엘 공원 벤치	29
<그림 62> 구엘 공원 벤치 장식 패턴	29
<그림 63> 구엘 공원 벤치 장식 패턴	30
<그림 64> 사그라다 파밀리아 내부 천정	30
<그림 65> 사그라다 파밀리아 탄생 정문	31
<그림 66> 나팔 부는 천사 모델 사진작업	32
<그림 67> 나팔 부는 천사 조각품	32
<그림 68> 동물을 그대로 묘사한 장식물	32
<그림 69> 달팽이를 형상화 한 나선형 계단	32
<그림 70> 사그라다 파밀리아 탑 조형물	32
<그림 71> 구엘 공원 타일 조각	35
<그림 72> 까사 바틀로 정면	36
<그림 73> 까사 바틀로 난로와 벤치	37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김석철, 『20세기 건축산책』 생각의나무
김성곤, 『서양건축양식론』 기문당
문정화, 하종덕 공저, 『또 하나의 교육 창의성』 학지사
손세관, 『안토니 가우디 아름다움을 건축한 수도자』 살림출판사, 2004.
스티븐 에스크릿, 『아르누보』 한길아트, 1998
아사쿠라 나오미, 조열 역, 『평면구성』 조형사, 1991
안토니오 가우디, 이종석 역, 『안토니오 가우디 공간의 환상』 다빈치, 2001.
이일훈, 『건축의 환상을 보는 또 다른 시각: 안토니오 가우디에 대하여』 꾸밈, 1984
전진삼, 『건축의 발견』 미건사, 1994
정성현, 최성원 공저, 『서양건축사』 동방미디어
필립 티에보, 김주경 역, 『가우디-예언자적인 건축가』 2006
하이스 반 헨스베르헨, 『어머니의 품을 설계한 건축가 가우디』 현암사, 2002.
Antonio Gaudi, 『Gaudi』 경기도 조선일보사, 2000
J.B.Nonell, 『안토니오 가우디 코르네』 2000
Jon Lang, 조철희, 김경준 공역, 『건축이론의 창조』 도서출판 국제, 2003

<국외 문헌>

- James Jonson. 『Antonio Gaudi』 Preage Publishers,1970.
Jasep M. Carandell. 『Park Guell Gaudi's Utopia』 Catalan: Triangle Postals, 2009.
Lourdes and Victoria Cirlot. 『Gaudi an introduction to his architecture』 Catalan:
Triangle Postals, 2010.

<학위 논문>

- 김수진, 「안토니오 가우디(Antonio Gaudi)의 조형성을 활용한 의상디자인 연구」.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2004.
- 김은영, 「현대 미술의 다양한 기법 적용을 통한 창의성 신장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 김정은, 「미술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중등학교 미술관 교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 김정화, 「미술교육에 있어서 창의성에 관한 학습이론 고찰」.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 김진아, 「가우디 건축의 유기적 형태를 응용한 장신구 연구」.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8.
- 남다혜, 「공공미술과 미술교육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박소정, 「안토니 가우디의 모데르니즘 건축」.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 박혜경, 「도시 속 환경조각을 활용한 도시환경미술교육 방안 연구」.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 송영복, 「창의력 중심의 미술교육 연구 : 우연적 표현기법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 신효정, 「안토니오 가우디 건축작품의 형태미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8.
- 이승정, 「현대 미술기법의 다양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통합미술교육 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 이준호, 「Antonio Gaudi i Cornet 건축작품 입구공간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 까사 밀라(Casa Mila, La Pedrera)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9.

- 장윤영, 「안토니오 가우디 건축의 조형성을 응용한 가방디자인 : 칠공예 기법을 활용하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4.
- 정은주, 「가우디 건축모티브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4.
- 채명진, 「도시공간에서 환경조각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 최은영, 「안토니 가우디 코르네 건축의 조각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ABSTRACT

Plasticity of Antonio Gaudi's Work Seen from the Viewpoint of Art Education

- On the Method to Utilize his Work to Educate Creativity -

Yanghee Kim

Major: Fine Art Education

Education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Advisor: Professor Jueun Lee

Modern society is demanding. There is the endless challenge of new things due to industrialization, which started with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science and technology that have rapidly developed during more modern times. This era also demands an imagination that destroys common sense and the creativity to break adherence to reality due to the emergence of technology, society and culture that did not exist in the past. The best way to respond to the demands of the new times is creativity. And as a way to develop creativity, art education can be chosen.

Contemporary art, unlike modern art and art prior to the 17th century that focused on objective expression and recording, is making a new effort to combine imagination in various ways. Since art education was introduced to school education in the late 19th century, it has carried out various functions to this day such as leading the industrialization movement, and was recognized for its

importance. Through art education people could develop imagination, originality, and creativity and improve intelligence. Art education, which started with Franz Cizek in the 19th century, was developed by John Dewey, V. Lowenfeld and Herbert Read. Today this creativity is considered the greatest fundamental principle in Korean art education.

The emergence of production machinery due to the Industrial Revolution brought about a rapid change in the level of comfort available to human lives. This shift greatly changed the ideas and standards that controlled the world of the day and the rapid change of ideas demanded a new art and architecture. The creativity of the late 19th century had to excel and overcome “honesty” and “precision”, the virtues that controlled the art of that day. Furthermore, art was coming out of a realistic expression phase that shows objects as they are, and the movement was shifting to expressing fundamentals. In the center of this movement was Antonio Gaudi (1852~1926). Although at that time his architectural works were not recognized because they expressed “the spirit of the times” prior to that era, today they are recognized as the best examples representing Spanish art. Gaudi’s creativity, which evolved originally from art nouveau and the mosaic movements of that time, is much studied in the stream of today’s visual culture including art, design, architecture and fashion.

Therefore, if art is increasingly taught in art education to demonstrate individual creativity that can freely express their thoughts, imagination, feelings, emotions, sentiments and experiences through Gaudi’s plasticity, it will achieve a positive effect. This study analyzes the architecture of Antonio Gaudi from Spain, recognized as the greatest modern artist, which expresses the beauty of curves, and applied its aesthetic value and artistry to art education in general. In addition the study suggests the educational direction needed to develop students’ creativity.

The conten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ly, it analyzes the plasticity of

modern art and Gaudi's work based on literature reviews; secondly, it defines the concept of creativity and studies, on the whole, the creative expression method that applies to Gaudi's plasticity; thirdly, it incorporates Gaudi's plasticity into an art program to suggest an educational method; and fourthly, through the art program suggested above, it confirms the educational value of art classe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lasticity of modern art and Gaudi's plasticity. By applying both these examples of plasticity to art education simultaneously for creativity so that it allows a variety of interesting expressive activities, this study researches the educational value of Gaudi's art in developing students' creativity.